

http://dx.doi.org/10.17703/JCCT.2023.9.4.127

JCCT 2023-7-15 초청논문

## 백랑공주는 왜 탐라에 왔을까?

### Why did the Byeokrang Princess come to Tamra?

이성국\*, 김정수\*\*, 이문호\*\*\*

Sung Kook Lee\*, Jeong Su Kim\*\*, Moon Ho Lee\*\*\*

**요약** 물(水)의 신(神)인 발타라(跋陀羅, Bhadra: 인도 북부지방 탐몰라주(耽沒羅洲: ‘물’자와 ‘주’자가 탈락되면서 ‘耽沒羅’)존자가 BC 563-483년경에 900명의 아라한(弟子)과 같이 탐라(BC483-AD1105 고려 숙종 때 탐라 왕국이 고려에 한군현이 됨)에 왔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물(神聖性, Heiligkeit, 4대 원소인 물, 불, 공기, 흙의 하나)을 통한 불교의 전파와 세계에서 가장 큰 나한(한라는 나한이란 뜻: 拏漢:漢拏 한라산의 한라의 역, 부록: 전주 황방산 서고사(西固寺) 나한전)의 돌(石) 등신불(等身佛)을 찾기 위해서다. 옛부터 제주 사람들은 남녘에서 불어오는 태풍 등을 한라산이 막아준다고 진산(鎭山 Truth Mt.)이라고 부르는데, 성불(成佛)한 거대한 나한이 한라산 화산 폭발시에 불(火)에 의해 백록담 바위의 등신불로 굳어버린 모양새다. 오는 날 제주에서 발타라존자의 가장 큰 숨결은 올레길 1번 성산포 시흥리(始興里)에서 26번 구좌면 종달리(終達里) 길이다. 바로 천부경(天符經)의 무시무종(無始無終) “시작은 끝이고(始即終), 끝이 시작(終即始)”을 타원형 제주 “길(道路 Way)”에서 확실히 보여준다.

**주요어** : 발타라, 탐라, 신성한 물, 불교, 진산

**Abstract** The god of water, Baltara (Bhadra: in the northern part of India), Tammola Around 563-483, he came to Tamra with 900 Arhats (BC483-AD1105, during the reign of King Sukjong of Goryeo, the kingdom of Tamra became Hangun-hyeon in Goryeo). It is the spread of Buddhism through the world's most sacred water (Heiligkeit, one of the four elements water, fire, air, and earth) and the world's largest Arhat The reverse of Halla, appendix: to find the stone statue of Buddha at Seogo Temple in Jeonju, Hwangbangsan. Since ancient times, Jeju people have called Truth Mt. that Mt. Halla protects against typhoons blowing from the south. It looks like it has been hardened by fire. On the coming day, the greatest breath of Venerable Baltara in Jeju is Olle Road No. 1 from Siheung-ri, Seongsanpo to No. 26 Gujwa-myeon Jongdal-ri. It is the Oval Jeju “Road Way” that clearly shows “the beginning is the end, and the end is the beginning” of Cheonbugyeong.

**Key words** : Baltara, Tamra, sacred water, Buddhism, Truth Mt.

\*정회원, 제주국제대학교 JEINS 운영지원팀 차장 (제1저자)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정회원, 숭실사이버대학교 ICT공학과 교수  
\*\*\*정회원, 전북대학교 전자공학부 초빙교수 (교신저자)  
일본 동경대 전자공학박사, 미국미네소타대 포스트닥  
접수일: 2023년 5월 17일, 수정완료일: 2023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 2023년 7월 1일

Received: May 17, 2023 / Revised: May 30, 2023  
Accepted: July 1, 2023  
\*\*\*Corresponding Author: moonho@jbnu.ac.kr  
Dept. of Electronics, Chonbuk National Univ. Korea

## 1. 서론 : 선사시대 탐라의 역사

역사 기록 이전의 제주의 先史 역사를 보면, 언제부터 제주에 사람이 살았는지는 분명치 않다. 김봉옥의 제주 통사에 기록을 요약했다.

- ① 1979년 제주대 박물관 애월읍 광령리 조개무지 발굴. 기원전 4세기 갈색 무늬 토기 발굴.
- ② 1985년 대정읍 상모리 선사 유적 공열토기(孔列土器) 발견.
- ③ 1986년 조천읍 북촌 토기, 골각기(骨角器) 발견.
- ④ 1988년 한경면 고산리 큰 사발 발견, 1994년 가는 돌칼 6천여 점 발굴로 기원전 8000년 전후 신석기 시대 초기로 상당한 문화 수준의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
- ⑤ 1997년 제주시 삼양동 원형수혈 주거지 유적 발견, 제주시 삼성혈 혈거지 및 삼사석비(三射石碑) 발견, 삼양동은 3을나의 집단 적거지, 화북리에 고을나 양을나 부을나의 화살을 쏜 삼사석비가 있다[그림 1].



그림 1. 고양부의 삼사석비와 탐라국발상지비  
Figure 1. Goyangbu's Samsa Stele and the Monument to the Birthplace of Tamna

제주의 옛 이름을 보면, 신라 27대 선덕여왕(632-647) 황룡사 9층 석탑 4층에 탁라(毛羅) 새겨져 있고 제주 탐라의 옛 이름으로 고려사 지리지에 보면 1105년(숙종 10년) 탐라를 탐라군으로 개칭했다. 1295년 충렬왕 21년에 탐라를 제주(濟州)로 고쳐 목사와 판관을 두었다. 고려 대장경 범주기 탐모라주(耽沒羅洲) 인도어에 비롯됨을 밝혀졌다. 불교가 전해져온 성지로 구전에 의하면 절 오백 당 오백(寺五百 堂五百)이란 말이 있고 한라산 영실 불래악(佛來岳; 속칭 불레오름)에 존자암(尊者庵)이 있다. 불레오름(보리수; 석가모니가 인도의 보리수 밑에서 도를 깨달은 나무 이름)으로 불리는 곳이다. 영실

(靈室)은 영수리(靈鷲)가 원음이고 5백 나한으로 둘러싸여 있다.

1488년-1506년까지 제주에 귀향 온 홍유손(洪裕孫 1431-1529) 남긴 글에 존자암에 대한 글이 있는데 존자암은 삼성(三姓: 고을나[高乙那] 양을나[良乙那] 부을나[夫乙那])이 처음 일어날 때 비로소 만들어졌고 3읍(三邑: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 대정현[大靜縣])이 정립된 뒤까지 오래 정해졌다. 한가지 유의할 것은 성산포 혼인지에서 벽랑공주와 고을나 양을나 부을나가 결혼한 것으로 봐서 인도에서 발타라존자와 같이 온 일행으로 추정하며 그때 오곡 씨앗과 소, 말, 돼지 등 짐승도 같이 싣고 왔다.

1601년 김상헌(金尙憲 1570-1652) 남사록에 존자암기가 나오고 1918년 이능화(李能和 1868-1945) 조선불교 통사에 보면 발타라존자 권속 9백 아라한(阿羅漢; 불법을 닦아 세상 사람들에게 공양을 받을 만한 공덕을 갖춘 사람)과 더불어 탐 몰람주(탐라)에 나눠 살았다는 기록이 있다. 범주기에는 발타라존자가 석가가 돌아가신 뒤 기원전 540년 전후 9백의 아라한이 탐라에 나눠 살았다. 이때는 2540년 전이다. 이는 옛 삼한(三韓) 시대이며 중국 춘추시대다. 근거는 제주 마을마다 절왓(寺田) 또는 절터왓(寺地田) 땅이름이 있고 그곳에 기와 조각이 나온다. 서광서리 넉계오름의 정상에 물통 근처에서도 기와장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탐라국이나 고려 시대부터 절을 지은 흔적인 절왓으로 추정되어 오랜 세월 이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고촌(古村)으로 보아 진다. 존자암 터는 불래악(佛來岳)의 중턱 해발 1200m 지점에 있다.

한라산 등신불(1950m)은 오늘도 바람을 막아(Wind Castle)주면서 하늘에 빗줄기를 바람에 태워 제주 산하에 골고루 뿌려주고 있다. 장엄한 한라등신불을 산방산과 가파도에서 보면, 절로 고개 숙여진다. 태풍이 불 때는 부딪치는 바람에 의해 등신불은 소리 내어 운다. 제주의 지정학적(地政學Geopolitical) 위치로 BC200년경에는 중국 진시황제가 불노초(不老草)를 캐러 500여명이 성산포 인근인 서귀포에 들렀고 정방 폭포벽에 서씨과차(徐市過此) 글귀를 남겼다[1][2][3][4].

발타라존자가 찾았던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은 1998년에 제주도민에 의해 화산 암반수인 삼다수를 찾았다. 또 한라산 정남향 산남(山南) 모슬포에서 한라산(1950m)을 봤을 때, 368개의 오름인 큰 나한(羅漢)들이

백록담 등신불 주위를 호위(護衛)한다. 겨울철 북쪽에서 오는 시베리아 찬바람이 백록담등신불의 돈내코 세로 300m 가로 260m암벽을 넘으면, 찬바람이 온풍으로 바뀌어지고 그바람은 제귀지풍(濟歸之風)이 되어 서귀포, 중문 등이 겨울철 기온이 2-3도가 상승한다. 반면 여름철 서귀포 바다에서 불어오는 남풍이 한라산 백록담을 넘어 99골(谷)계곡을 지나는 귀제지풍(歸濟之風)일 때는 제주시는 무더위가 폭풍 쩐다. 원인은 돈내코 같은 암벽이 없기 때문이다.

발타라존자 일행의 뗏목배는 타원형 탐라의 동쪽 끝이 뾰족하게 나온 성산포 십지코지(곶串Cape)에 쿠루시오 해류가 부딪치면서 닻을 내렸다. 혼인지에서 발타라존자의 3을나가 바로 결혼을 해 굴(窟)속에서 신혼생활에 들어간다. 발타라존자의 900명의 아라한들이 성산포 십지코지(제주에서는 '지혜가 많은 사람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어원은 지혜의 신 頭陀第一마하가섭(摩訶迦葉) 십은 나뭇잎 엽)의 이름 십(葉)자와 지혜의 지(智), 코지는 곳(Place)이 합성어인 '십지코지'로 추정되며 발타라존자 일행이 상륙한 곳이란 뜻으로 저자는 풀이한다. 신양리 마을지에서는 峽地가 구개음화하여 십지로 뜻은 의협심 인제의 땅으로 풀이)에 상륙했고 혼인지의 동굴에서 신혼방을 꾸렸다. 성산포시흥, 혼인지, 온평리-구좌 종달 리가 고양부3을나의 탐라 정착 초기 집성촌, 현재, 초기집성촌을 중심으로 한라산 산북 방향중산간로 1136을 타고 도보로 4시간이면 조천삼양의 3을나의 Head Quarter 집성촌에 도착하고, 반대로 한라산 산남은 1119를 타고 5-6시간이면 서귀-중문에 도착한다. 성산포 인근 우도(牛島)는 소머리섬, 불가에서는 진리의 상징, 바다에 십우도(尋牛圖)를 그려놓은 게 우도, 소는 우직, 성실, 온순하고 끈질긴 성격으로 농경 중심사회에서 동력 수단으로 밭을 갈았다. 영어의 알파벳A 자도 소의 머리 형태에서 나왔다. 모슬포 앞바다에 가파도는 부처의 가피(加被) 입고, 마라도의 마라는 번뇌(煩惱)를 깨라는 은유적으로 쓴 가파도-마라도 이름을 작명하게 아닌가 추정한다.

본 논문은 저자가 쓴 제주의 門 수정판 2024년 발간 예정을 기본으로 했다. 또한, 이문호의 제주의 문을 참조했다.

본 논문의 구성은 1장 서론에서 기록 이전의 제주의 先史 역사, 2장에서는. 쿠루시오 해류(黑潮, Kuroshio current 해류=벽랑(碧浪)공주, 수로만리의 거센 파도를

'공주(公主)'로 의인화(擬人化), 3장에서는 벽랑공주, 4장에서는 발타라존자 아라한 3을나의 점성술을 이용한 항해술과 집성촌의 설계, 5장은 결론이다. 부록은 한라산 어원해석이 첨부된다.

## II. 쿠루시오 해류

(黑潮, Kuroshio current 해류=벽랑(碧浪)공주), 수로만리의 거센 파도를 '공주(公主)'로 의인화(擬人化)

발타라존자는 인도 뱅갈만-인도양에서 쿠루시오(黑潮, Kuroshio current)해류를 타고 필리핀-일본해-탐라탐라 성산포 온평리 혼인지에 왔다. 온평리 입구에는 마을을 지키는 영등 할망상이 있는데, 영등 서북풍 바람이 1월에 우도(牛島)로 들어와 봄의 풍요를 곳곳에 주고 다니다가 2월 초 한림 귀덕리 포구에서 태평양 바다로 나간다. 관련 일화는 바다에서 고깃배가 난파됐는데 영등 하르방을 만나 "관세음보살"을 계속 암송하면 고향으로 갈 수 있다고 했고 마침내, 고향에 당도하였고 이 말이 소문이나 어촌에서는 송구신영(送舊新迎) 영등곳을 해마다 하며 쪽배에 액(厄)을 태워 바다에 띄운다. 또한, 제주에는 "당(堂) 5백 절(寺) 5백"이란 말이 있다. 신의 18,000있다고 하여 "신(神)의 고장"이고, 절(寺)의 각 마을마다 있다고 하여 "절(寺)의 고장에서" 나온 말인데, 절을 지었던 자리인 절밭(田)은 오늘날 그대로 전해지며 기왓장 등이 발굴되고 있다[1][2][3][4].

쿠루시오 해류는 북태평양 중위도 아열대 순환의 서안 경계류로서, 북적도 해류의 일부가 필리핀 동쪽해역과 동중국해를 지나 일본 남쪽으로 북상한 후 북위 36° 부근에서 동쪽으로 흘러가 북태평양해류와 연결되는 해류이다. 쿠루시오란 일본어로 흑조(黑潮), 영어로는 Kuroshio라고 하며, 해수의 색이 암흑색으로 보이는 것에서 유래했다. 난류인 쿠루시오 해류는 영양염과 식물성 플랑크톤, 혼탁물이 적어 바닷물이 매우 맑기 때문에 태양 빛 중 청남색을 많이 투과시켜 검게 보이는 것이다.

일본의 남쪽에서 쿠루시오해류는 폭이 약 100km이며, 해수면의 수위가 연안 쪽에 비해 외해(外海) 쪽이 약 1m 높다. 해류의 흐름은 사행(蛇行) 또는 직진(直進)하며 계속 변동하고, 최대 유속은 약 2.0~2.5 m/s로 매우 빠르다. 사행하는 쿠루시오의 주변에는 다수의 난수

성 또는 냉수성 소용돌이(eddy)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발타라존자 일행 900명은 인도 북부 벵갈만 을 지나 인도양-필리핀 - 쿠류시오를 타서 일본해를 지나면 성산포 섬지코지(곶串)인 온평 포구에 닿는다. 인도와 탐라 하늘길은 5-6천Km, 비행기로 약 8시간, 해류는 돌고 돌아오기 때문에 약 1만 km, 보름 이상 뗏목배가 걸릴것으로 보아 진다. 제주해를 돈 쿠류시오해류는 남해 진도항의 울돌목을 거치고 황해로 올라타 백령도와 장산곶(長山串)에 인당수(印塘水)를 거친다[그림 2]. 바로 이순신 장군의 명랑대첩과 심청이 이야기가 있다.



출처: 해양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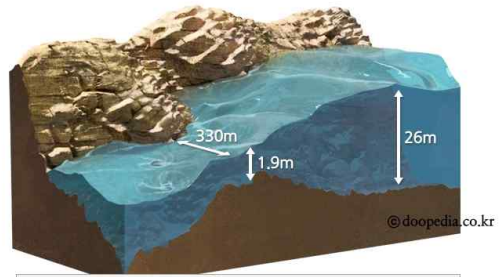
그림 2. 쿠류수오해류(벽랑공주) 사진  
Figure 2. Kuryusuo Current (byeokrang princess) photo—  
sourc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1. 이순신 장군 명랑대첩의 울돌목

조선조 정유재란 때인 1597년(선조 30) 9월 16일 이순신(李舜臣)이 명랑(울돌목 鬱陶項: 전라남도 진도와 육지 사이의 해협)에서 일본 수군을 대파한 해전이 명랑해협(鳴梁海峽),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반도(花源半島)와 진도(珍島) 사이에 있는 해협이다. 우리나라에서 조류(潮流)가 가장 빠른 곳으로 유명한데, 지형적으로 폭이 좁은 데다가 수심이 얕아 조류가 이곳을 지나면서 물살이 빨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조수간만의 차가 큰 편으로, 밀물과 썰물에 의한 바닷물의 이동이 많은 것도 이곳의 물살이 빠른 요인이 된다. 해협 중 폭이 가장 좁은 곳은 약 300m 정도이며, 유속은 수심 전반에 걸쳐 평균 5.5m/s, 바다 표층은 최대 6.5m/s에 달한다[그림 3].

특히 조차가 가장 큰사리(대조,大潮) 때 가장 빠르다. 좁은 지형에 대량의 물이 지나면서 소용돌이가 일어나기도 하며, 물살로 인한 소리가 매우 큰 것이 특징인데, 예로부터 바위가 우는 것 같다는 의미로 '울돌목'이라

불렀고, 이를 한자로 표현한 것이 '명랑(鳴梁)'이다.



바닷물의 깊이는 평균 2m 안팎이다. 약 330m의 좁은 물길로 갑자기 많은 물이 흘러들어 유속이 빠르고 바위에 부딪혀 소용돌이가 생성되는 지리적 특성이 있다

출처: doopedia.co.kr

그림 3. 명랑 해협의 해저 지형 단면도

Figure 3. Cross section of the seafloor topography of the Myeongnyang Strait

명랑해협은 임진왜란때 이순신(李舜臣) 장군이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 함대를 물리친 곳으로 유명하다. 이 해전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배경은 조류가 빠른 명랑해협의 지리적 요건을 이용한 데 있었다.쿠류수오 해류의 급한 물살이 불후의 이순신 장군을 낳았다 [2][3].

### 2. 심청이 이야기

아버지 심봉사 눈을 뜨게하기 위해 공양미 3백석에 팔려 제물이 되는 곳이 인당수(印塘水), 경기도 백령도(백령도에는 심청이 사당이 있다 [그림 4])와 장산곶(串) 사이 물길이 세기로 유명하다.



출처: <https://blog.naver.com/ttpp2002/221095900554>

그림 4. 백령도 심청각과 심청이

Figure 4. Baengnyeong Island Simcheonggak and Simcheong

이 바닷물 해류도 쿠로시오 해류다. 15세 이하 동정녀 처녀를 공양(供養)하면서 건너는 바다.

### III. 벽랑공주

발타라존자 일행은 오곡씨앗과 소, 말, 돼지 짐승들과 같은 것들을 뗏목 배에 실어 인도에서 탐라까지 바다 길 약 1만 Km를 건넌다. 그 바다 길은 '수로만리(水路萬里)'. 전설에 의하면 벽랑공주는 벽랑나라의 공주인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고 본다. 이유인즉, 거친 파도길(벽랑(碧浪))인 쿠로시오 해류를 헤치고 나오기 위해 파도가 잔잔해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되어 쿠로시오 해류를 "아름다운 공주"로 의인화한 이름이 "벽랑공주"로 추정된다. 거친 파도가 잔잔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동정녀를 바다에 공양하는 심청이에서 보듯, 고대(古代)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액(厄)을 막기 위해 인신공양(人身供養) 풍속이 있었다.

또한, 동정녀 처녀 3명도 900명 아라한들과 같이 동행했다. 아라한 900명이 지도자 고, 양, 부 세 사람의 세 그룹 Leader, 각각 세 그룹은 고을나(300명), 양을나(300명), 부을나(300명)이 뗏목 배를 타고와 혼인지(婚姻地 성산포)에서 결혼했다. 혼인지는 연못옆 들판, 발타라존자가 물의 신(神), 연못옆에 결혼식장을 꾸린 것은 당연한 일. 그 후 한라산과 가까운 평야 들판인 삼양(三陽)에 고을나, 삼양 인근 도련(道連)에 양을나 집단 촌락을 형성하고 움집(몽고에 유목민 집과 비슷하지만 집 입구에 정낭 설치, 竪穴住居(수혈주거로 반지하 가옥. 원형 또는 사각형으로 땅을 파고 둘레에 기둥을 세워 이엉을 덮어 만들었다. 바닥은 대개 진흙을 깔고 움집 안에는 취사와 난방을 위한 화덕을 설치했다. 날이 갈수록 움집은 지상 가옥에 가까워지며 화로나 저장 구덩이는 밖으로 돌출시킨 감실(龕室)에 설치됐다. 겨울 양식인 고구마저장 땅속 구덩이를 파서 저장했다. 60-70년대 까지만 해도 제주 윗드르(上野) 중산간 농촌에서 사용되었다)에 살았으며, 부을나는 삼양에 가까운 조천에 대흘(大屹) 와흘(臥屹) 선흘(善屹)이라는 곳에 살았다. 또한, 인근 화북리(禾北里)에서 화살을 쏘아(삼사석三射石) 거주지를 정하였다. 그 방법은 화살이 멀리 나간 사람이 제일 큰 형이고 그다음 멀리 나간 순서로 거주지를 정했다. 한라산 영실에 수도사(修道寺), 각마을에 포교사(布敎寺)를 설치했다. 삼양리위 마을인 회천(回泉)리에도 고,양,을나제2에 집성촌이 형성됐다. 삼성혈(三姓穴)에는 고,양,부 3姓 제단(祭壇)을 쌓아 모셨다.

### IV. 발타라존자 아라한 3을나의

#### 점성술을 이용한 항해술과 집성촌의 설계

강문규 한라산 생태문화유산연구소장의 발표에 의하면, 3을나의 집성촌 설계를 별자리를 보고 집성촌을 나눴다고 했다[8]. 고대 인도와 중국은 점성술문화(Astrology Culture)가 발전되었는데, 발타라존자 일행도 쿠로시오 해류 약 1만 Km를 항해해 올 때도 하늘에 북두칠성 별자리를 보면서 탐라를 찾았다,

탐라시대 전기에 취락이 형성된 안덕면 화순리 안덕계곡 하류지역인 남부화력발전소 상단 일대에는 고인돌과 바위에 새긴 북두칠성 별자리가 잘 남아 있다. 별자리를 이용한 집성촌 설계는, 제주시 일도동(지금의 칠성로 일대(북두칠성의 자루 부분인 별 세 자리가 있는 지역)은 삼을나의 만형이, 이도동과 삼도동은 밑에 동생들이 주걱 부분의 4개 별자리를 두개씩 차지하고 있는 형태로 나뉘어 살았다. 칠성로 끝에는 바다 해변 밑에서 산지천이 솟아나는 곳으로 집거지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고 이도동은 가락코천, 삼도동은 병문천을 끼고 있다. 성산포 집성촌이경우도 북두칠성 별자리(자루3, 주걱4)가 마을 형태로 투시됐는데, 제1 집성촌은 섬지코지(1)-혼인지(2)-온평리(3)-성산일출봉(4)-성산시흥리(5)-구좌중달리(6)-우도(7)이고 제2 집성촌은 화북(1)-삼양(2)-도련(3)-조천(4)-봉개(5)-대흘(6)-명도암(7)으로 1234567 별자리 순으로 마을이 조성돼 있다. 한편, 제주도 마을에 초가집의 안채와 바깥채도 북두칠성의 "자루와 주걱"을 연상시키는데, 이는 '바람길을 터주며 안과 바깥 공간을 분리'하고 있다. 동양에서는 북두칠성을 밥이나 국을 뜨는 "주걱( Rice Paddle)과 자루(Sack)"를 연상한데 비해 서양에서는 큰곰(Brown Bear)의 모습이나 밭을 가는 삽(Shovel)과 같은 기구를 상징했다. 탐라의 북두칠성에 관한 자료는 1530년 (중종 25) 이행(李荇)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언급된 '칠성도(七星圖)' 기사가 최초의 기록이다. 「칠성도: 주성 안에 있다. 돌로 쌓은 옛터가 있다. 삼성이 처음 나와서 삼도를 나누어 차지하고 북두칠성 모양을 본떠 대를 쌓아 나누어 살았다. 그 때문에 칠성도라 부른다(七星圖=在州城內石築有遺址三姓初出分占三徒倣北斗形築臺分據之因名七星圖) 이후 등장하는 사료들은 대부분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인용하고 있을 정도로 사료로서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 위 기록을 시작으로 탐라도의 북두칠

성에 대한 자료는, 임제의 『남명소승』 (1577), 홍천경의 「결승정상량문」 (1599), 김상헌의 『남사록』 (1601), 이원진의 『탐라지』 (1653), 이형상의 삼성묘상량문 (1702), 18세기 초로 추정되는 「제주읍성도」, 김정의 「수축월대칠성도」 (1737), 신광수의 『탐라록』 (1764), 이원조의 『탐라지초본』 (1843), 19세기 전후한 시기로 추정되는 홍종시의 「제주 성내고적도」 (1979), 김석익의 「과한록」 (『심재집』, 1923), 「매일신보 기사 및 사진」 (1926.5.11일), 담수계의 『증보탐라지』 (1954)가 시대별로 존재하고 있다고 강문규선생은 말하고 있다.

### V. 결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타원형 탐라지도에서 보듯, 동쪽 끝 성산포 시흥리(始興里)가 올레길 1번에서 출발하고 돌고 돌아 시흥리 왼쪽 끝마을 인 구좌 지미봉(地尾峰) 종달리(終達里)가 26번 종점이다[그림 5].



그림 5. 제주도 지도, 은평포구  
Figure 5. Map of Jeju Island, Eunpyeong Port

시흥리와 종달리가 거의 붙어있어 출발점과 종점이 같다. 천부경(天符經)의 무시무종(無始無終) “시작은 끝이고(始即終), 끝이 시작(終即始)”. 즉 올레길 1번인 성산 일출봉(日出峯) 시흥(始興)에서 시계방향으로 출발해서 올레길 7번 서귀포와 성산포[그림 6]에서 반시계방향으로 출발해서 종달리를 지나 올레길 16번 애월 고내까지 고,양,부올나의 집성촌 들이 듽성 듽성 산포 되었는데 특징은 짐승사냥과 나무 열매 채취, 바닷가 미역 채취, 고기잡이를 하면서도 식량을 더 해결할 수 있는 농사를 짓기 위한 들판과 마실 물을 찾았고 물가 근처를 끼는 곳에 집성촌이 들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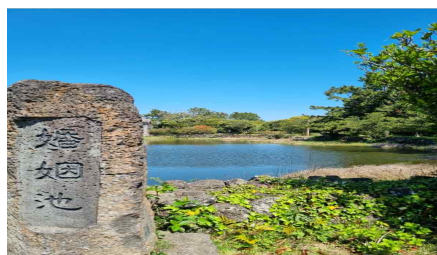


그림 6. 성산포 혼인지  
Figure 6. Seongsanpo Marriage Place

특이한 곳이 모슬포 인근 서광서리는 고을나의 집성촌, 남송이오름(해발 340m)과 넙게(Crab)오름이 동네를 받치고 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들짐승이 많이 살고 독수리도 많았던 유명 사냥터. 넙게오름 8부정상에 분화구인 굽부리(火口)가 있고 굽부리에 고을나가 살았다고 추정되는데, “흙비 내리니 장독대 두껍 단으라”란 전설이 내려온다. 남송이오름이 원래 이름은 “나르는 수리(비취飛鷲 Flying Eagle).”이고 곳자왓(수藪)에, 오설록 녹차밭, 영어교육도시, 신화공원이 들어선 제주 제일의 신도시다. 독수리 등지(‘텅애’ 제주사투리)는 남송이오름 앞 ‘생기(生氣) 동산물’에 있다.

인도에서 탐라까지 수로 만리길을 건너온 발타라존자에 의해서 각 마을에 인도 풍속이 전래 됐다. 예를들어 집 올레에 세 개의 정낭(錠木 Gate) 오늘날 스마트폰 010 원리와 DNA 유전자 코드 원리, 돛통시(변소), 쇠뿔을 말려 뿔감으로 사용, 장(葬)났을 때, 대나무를 쪼개서 돼지고기를 썬 적(인도인은 숭갈 없이 멘손가락으로 식사에서 비롯됨) 등이다. 현재 제주에 고씨 집성촌은 한경면 고산리, 안덕서광리, 구좌한동리, 조천리이고 양씨는 애월 상가리, 남원 신에리이며 부씨는 구좌 하도리 등 성산포를 중심으로 촌락이 형성됐다. Sea Silk Road의 불교 전래 연대는 855년 전으로 본다. 발타라존자가 BC 563-483년 사이에 탐라에 온 시점에다 우리나라 고구려 소수림왕 2년 372년에 불교가 전래됐으니, 372+483년=855년으로 추정된다. 855년 년대는 추후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5][6][7][8].

### References

[1] “Kuroshio current”, (Earth Science Dictionary, 2009. 8. 30., Korean Society of Earth Sciences) [Naver Knowledge Encyclopedia]  
[2] Moon Ho Lee, “Gates of Jeju”: Seogwipo Cultural

Center, 2015.

- [3] Moon Ho Lee, "Mt. Halla is Buddha", Jemin Ilbo, 1997.9.15.
- [4] Kim Bong-ok, Jeungbo Jeju Tongsa, Book Publishing Serim, 2009.
- [5] Moon Ho Lee, Jeong Su Kim, "The Natural Intelligence of the Wind Castle Design with the World Natural Heritage of Jeju Island", Springer Nature Switzerland AG 2021, Z. Hu et al. (Eds.): AIMEE 2020, AISC 1315, pp. 237 - 247, 2021. [https://doi.org/10.1007/978-3-030-67133-4\\_22](https://doi.org/10.1007/978-3-030-67133-4_22)
- [6] Moon Ho Lee, "The History of Jeju Jong Nang Binary Code." IEEE Vehicular Technology Society News, Vol.50 No.1 Feb. 2003.
- [7] Sung Kook Lee and Moon Ho Lee, "The COVID-19 DNA-RNA Genetic Code Analysis Using Double Stochastic and Block Circulant Jacket Matrix", IntechOpen Books, Matrix Theory - Classics and Advances, December 22nd, 2021. Published: April 17th, 2022. DOI: 10.5772/intechopen.102342
- [8] Munkyu Kang, "Values and Utilization Plans of Different Cultures of Jeju", From Myth to History - Namgeugnoinseong and Seogwipo Cultural Heritage. (sa) Tamna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Association, 2023.6.23. Seogwipo City Hall Seminar Room

**부록: 한라산 漢拏山 (漢 한수 한拏 불잡을 나라) 산 메 산! 950m) 어원해석**

제주도(濟州道) 중앙(中央)의 주봉. 산 위에는 둘레 3km, 지름 500m의 대(大) 분화구(噴火口)였던 백록담(白鹿潭)이 있고, 산허리에서 산기슭에 걸쳐서 368 개의 측화산(側火山) 오름이 있다. 화산체(火山體)는 주(主)로 제3기 말에서 4기 초의 암류와 그 후의 현무암(玄武巖)으로 이루어졌으며, 1002년과 1007년에 분화(噴火)하여 많은 용암(鎔巖·熔巖)을 분출(噴出)시켰는데 지금은 휴화산(休火山)이다. 삼신산(三神山)의 하나로 치며, 북쪽 기슭에 있는 삼성혈(三姓穴)은 도민(道民)의 창조(創祖)인 세 신인(神人)이 용출한 곳으로 유명(有名)하다. 참나무·산벚나무·단풍나무(丹楓) 등(等)의 모목을 비롯하여, 삼대(三帶)의 식물(植物)이 울창하다. 학술(學術) 연구(研究) 자료(資料)의 수집(蒐集) 장소(場所)이다. 박용후의 제주도 옛땅 이름 연구(1992년, 제주문화)에 의하면, 漢拏의 한(漢)은 은한(銀漢: 은하수)를 말하

고 나(拏)는 끌거나 손으로 잡는다는 뜻으로 은하수를 끌어 잡을 수 있다는 뜻으로 산이 높은 것을 뜻한다고 알고 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한라(漢拏)는 거꾸로 읽으면 라한(拏漢: 일체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어 중생의 공양에 응할만한 불교의 성자: Arhat, 참조 1. 전주 황방산 서고사(黃龍山·西固寺)(십육나한 중 제3존자 가낙가발리타사(迦諾迦跋釐檳闍), 제5존자 낙거라(諾距羅), 제7존자 가리가(迦理迦), 제14존자 벌나파사(伐那婆斯), 제16존자 주다반탁가(注茶半託迦 다섯나한[그림 7])의 탕화 나한전(拏漢殿), 뜻은 '물을 찾아라'이다. 중산간 마을에 물이 귀했다. 마을마다 봉천수(奉天水, 돌 위에 빗물을 받아 모아 식수로 사용)를 마셨다. 참조 2. 그림 8은 서울 북한산 삼천사 나한전을 보인다.



그림 7. 전주 서고사 나한전  
 Figure 7. Jeonju Seogosa Nahanjeon  
 (사진 제공 이순중박사, 통신, 기계안전 기술사)



그림 8. 서울 북한산 나한전  
 Figure 8. Seoul Bukhansan Nahanjeon

또한, 영실 기암과 오백 나한(靈室奇巖 五百羅漢)도 한라산 라한 등신불을 받들고 있다. 한라산 정상의 서남쪽 기슭에 해발 1,600여m의 위치에서 아래로 약 250m의 수직 암벽이 형성되어 있는데 영실에 있는 기암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곳이 영실기암이다. 나한(羅漢)은 바위에 나한, 나한(拏漢)은 사람 또는 의인화(擬人化)일 경우에 사용되는 말로 영실 기암과 오백 나한과 한라산의 나한(拏漢)을 들 수 있다.

감사의 말씀:

본 논문에 연구에 motive를 주신 고(故) 李甲富 선친께 이 논문을 올립니다.

밤낮으로 눈만 뜨면 ‘하늘 천(天) 따지(地) 가물 현(玄) 누를 황(黃), 한 일, 두 이, 석 삼’을 외우다 3년전 95세에 돌아 가셨다. “큰 아들이, 이 말이 뭇 고?” 나는 대답을 못했다. 그 뜻을 이 논고를 다 쓰고 나서 추고 과정에서야 알았다. 작은 오름이 368개, 마지막 한라산도 큰 오름, 합하면 369개라는 말을 오름 속 오름, 제주 오름은 한라산 포함  $369=3(\text{한}1+\text{두}2+\text{석}3)$ : 10의2승 10의1승, 10의0승, 이 Base.” 2,3은 소수(Prime Number). 한라산에 오름수(數)를 감춰 놓았다.

또 오름속은 반야심경이 뜻이 내포돼있다. 상즉불이(相卽不二)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空卽是色)인 반야심경 경구이다. 이유인즉 육신(1/2)과 정신(1/2)은 하나, 서로 합해지면 하나다. 오름도 제주 등고선 땅위에 오름의 반이 있고 땅속에 반이 있다. 368개의 오름인 큰 나한(羅漢)들이 한라산 백록담 등신불을 가운데 두고 호위(護衛)하고 있다.

본논문에 많은 자문을 해주신 이순중박사(통신, 기계안전) 기술사님께 감사드립니다.